

DuPont, Polyamide계 EP 증설

Zytel · HTN 브랜드 공급 위해 ... 1만3000톤 생산능력 기존의 2배

DuPont의 엔지니어링 폴리머 사업부는 증가하는 Zytel · HTN 고기능 Polyamide 수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만3500톤 생산능력의 플랜트를 100% 증설하고 있다.

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플랜트에 건설중인 설비는 2004년 말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다.

DuPont 엔지니어링 폴리머 사업부 매니저인 Clive Robertson은 “플랜트 증설규모는 기존 DuPont의 Zytel · HTN용 베이스 폴리머 용량의 2배를 상회하고 자동차, 전기전자 및 기타 다양한 소비자 및 산업용 부품의 핵심재료로 쓰이며 이에 따라 전세계 시장에서 진행중인 시장확대 프로그램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”고 밝혔다.

증설되는 제품의 용도는 자동차 연료밸브 및 냉각제 시스템용 부품, SMT가 요구되는 다중편방식 전기전자 커넥터, 가전제품용 부품, 오븐 팬, 온수기 흡배기관 및 전원 변압기용 부품 등이다.

DuPont이 증설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고기능 Polyamide가 2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EP(Engineering Plastic)로 금속 및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 또 내열성과 내습성이 강하고 치수안정성과 함께 탁월한 성형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.

한편, DuPont은 최근 DTI를 Koch Industries에게 매각함으로써 나일론으로 대변되던 DuPont의 섬유사업을 정리하고 EP사업을 확충하고 있다. <김선환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27>